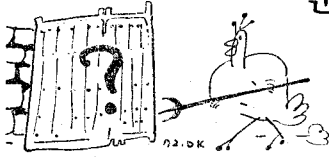


양계업계의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오 세 정

(전국대 축대 교수)

목 차

1. 알찬 경영과 기술로 내적인 충실을 기하자.
2. 부화장의 시설개선과 위생철저
3. 초생추의 생산조절
4. 국내 육종사업의 촉구
5. 국내 생산 원료사료 활용
6. 연구와 창조의 실천
7. 경영하는 양계업으로
8. 파란의 방지
9. 계육의 유통대책
10. 계란의 유통대책
11. 육추비결
12. 산란계의 관리개선

우리나라의 양계업계와 이와 관련된 산업(사료, 약품등)은 수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크게 발전을 가져왔으며 또한 규모와 경영면에서도 타분야에 비하여 눈부실만큼 향상되었음은 누구나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 조류가 무력전쟁에서 경제적인 힘의 대결로 번치되며 또한 남북한 7.4 공동성명 이후 우리는 국가 경제면에서나 민족적인 사명감에서 불배 반성되어야 할 점이 많으며 또한 업계의 각성과 개선을 촉구하는 변환기가 왔다고 본다. 이에 따르는 시급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하는 바이다.

1. 무모한 규모의 확대와 수적인 증대보다 알찬 경영과 기술로 내적인 충실을 기하자.

양계업은 타축산업에 비하여 국내의 정세와 경제적인 실정에 비추어 가장 불리한 산업이다. 그 이유는 생산재가 거의 외국에 의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계란과 닭고기를 먹는것은 외화를 들여서 사다먹는 것과 같다.

더욱이 금년은 생산과잉으로 인하여 수급의 불균형으로 생산자가 적정이익을 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란만 가져 오고 있다.

이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책임전가에 앞서 사육업자 스스로 저야할 문제이다.

물론 부화업자나 사료업자가 치열한 경쟁과 생산과잉으로 인한 외상판매 공급의 소산으로 연쇄적인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서로 반성과 자제력이 촉구된다. 그러나 현실 여건하에서 과거와 같이 투기적으로 무모한 규모의 확대와 수적인 증대를 지양하고 또한 병아리와 사료의 외상공급이라는 구실밑에 시설의 확장을 하지 말고 자기의 능력과 기술 자금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알찬 경영과 기술의 향상으로 생산성(수량)을 높이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되며

아 가서는 양제업의 안전과 국가경제를 발전시키
는 일이 될 것이다.

■ 수적인 증대와 규모의 확장만이 소득의 비례
적인 증가라고는 볼 수 없다.

오직 자기의 여건하에서 적정규모로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선결이며 안전한 소득을 얻
는 길이 되고 전체 양제분야의 안정과 건실한 발
전을 기하는 길이 된다.

사육수가 많은 것을 자랑하며 허세를 부리지
말고 생산성이 높은 것을 자랑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화장의 시설개선과 위생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화장 실태를 살펴보면 몇개소를
제외하고는 구태의연하고 아주 비위생적 과정에
서 유통, 처리와 생산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한
질병의 오염은 물론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법적 미비와 행정적인 감독의 불철저를 기화
로 구실을 삼지 말고 부화업자가 스스로 자각하
고 작성하여 개선토록 촉구하며 또한 양제업자
도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여 질병의 오염 또는
감염되지 않은 건강추를 사육하기 위하여는 불실
한 부화장에서 생산되는 병아리는 아무리 값이
싸다 하더라도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서 자율적인 정비와 나가서는 개선을
촉구하는 길이 되며 전전한 양제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초생추의 생산조절은 필히 이루어져 야 한다.

생산조절은 부화업자 자신을 위하여서나 양제
업자의 안정을 위하고 나아가서 국가경제를 위
하여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법
에 의거 행정적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법과 업
계가 단합 협조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축산법을 개정하여

① 종계의 등록과 검사의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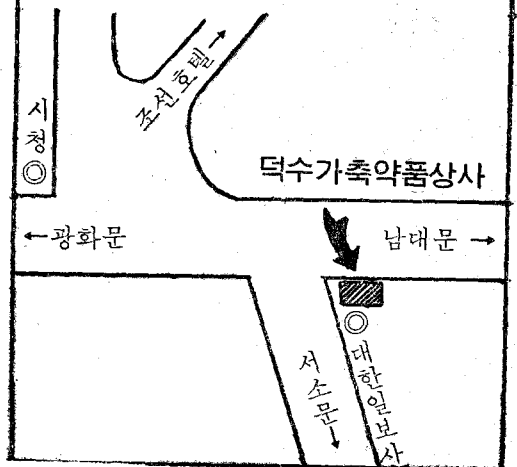
덕수가축약품상사

(旧성약원가축약품)

서울중구태평로2가344-3

대한일보사연(우측)

TEL · 28 · 0645



- ② 부화장의 시설기준과 위생검사철저
 - ③ 부화장을 허가제로 변경
 - ④ 입란증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
 - ⑤ 생산통계의 정확한 보고와 공개
- 후자의 경우 자율적인 협력으로
- ① 협회에서 회의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 ② 생산 공급의 체계의 일원화(지역별, 협력) 계열화
 - ③ 자율적인 제재와 개선촉구
 - ④ 부화공단(孵化公團)의 설립과 운영

4. 국내 육종사업의 추구

외국제도입으로 인한 능력의 향상과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반면에 질병의 도입과 생산과잉의 큰 요소가 되었으며 한편 외화의 손실을 가져왔고 국내육종사업의 저해 및 품질의 불신도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앞으로는 국내육종으로 자급체제와 한국의 기후조건과 사료 및 관리조건에 적합한 우리나라 나름대로 경제적인 품종의 개량과 사육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 ① 국가의 지원과 보호책이 선행
- ② 육종개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협력 체제를 갖춘 공단의 설립
- ③ 사육자 스스로 민족적 의식을 양양하여 국내종을 애용토록
- ④ 육종상 필요한 순 원종의 도입을 억제할 것.

5. 국내 생산 원료사료를 최대 활용한 배합사료의 이용증진

현재 양계사료는 약 90% 내외가 도입 사료에 의존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도입사료의 수급과 외화실정 및 가격등에 비추어 불안전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과거 양계사료는 강류를 주로한 사료배합에서 오늘날은 곡류를 위주로한 배합사료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유지를 주로한 배합으로 변천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문제는 곡류나 유지류가 국내자원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면에서 이용하

여도 좋은 일이나 순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경제와 민족적 양식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료배합이 생산되어야 하겠다.

- ① 지나친 고단백 고열량 사료를 지양
- ② 경제적인 최저요구량을 공급하는 사료배합 실시
- ③ 국내자원의 활용 증대
 - Ⓐ 녹사료를 반드시 급여
 - Ⓑ 패분, 골분, 해조의 품질개선과 활용성증대
 - Ⓒ 곡류사료의 효율적인 활용증대
 - Ⓓ 농산제조부산물의 이용
 - Ⓔ 축산부산물의 사료화
 - Ⓕ 발효사료 미생물사료의 개발이용
 - Ⓖ 단백질사료의 개발과 최소량급여
- ④ 능력과 연령 상태 계절에 따르는 효율적인 사료배합과 급여
- ⑤ 사료의 질적, 양적손실의 방지
- ⑥ 자급사료에 입각한 효율적인 이용

6. 연구와 창조에 의한 실천으로 개선해 나가는 양계업자가 되자.

우리나라 국민성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 즉 알은 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가장 아는 척하며 고집과 타성이 있어 조금도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잘 알고 능력이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으며 개선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항상 배우고 연구하며 창의와 창조적인 정신을 가져야하며 배움에는 실패나 노유가 없는 것이니 스스로 반성과 실행하는 자세가 아쉽다.

그리고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불신증조를 불식하도록 서로 협조와 단결로서 신의가 두터운 양계업계가 되어야 하겠다.

7. 경영하는 양계업으로

주먹구구식의 양계에서 재산과 수지를 맞추는 장사식의 양계를 하여야 한다. 즉

- ① 기장을 하여 수지결산과 검토를 하여 개선을 하며

- ② 생산능력의 향상은 경제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 ③ 생산비 절감에 최대 노력
- ④ 주생산물을 비롯하여 부산물까지도 알뜰하고 유익하게 판매되도록하여 수입의 증대를 기할것. 계란, 폐계, 부로일터를 비롯하여 공포, 계분, 닭털, 내장등의 효율적인 이용과 판매.

8. 파란의 방지

계란이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파란율이 5~10%나 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큰 것이다.

파란의 원인을 들면

- ① 알껍질이 얇아서 단단치 못하였을 때
- ② 취급상의 부주의와 운반시 충격
- ③ 무기물과 비타민의 결핍
- ④ 산란계의 스트레스와 생리적 장애
- ⑤ 난상자와 산란상의 미비
- ⑥ 판리자의 부주의
- ⑦ 닭이 쪼아서 파자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파란이 발생되니 각별히 주의할 것.

9. 닭고기의 유통대책

- ① 유통체계의 일원화와 유통과정의 단축
- ② 생산조절과 계약 생산체계
- ③ 닭고기 전문 도매시장의 개설
- ④ 규격과 등급제를 철저히 실시
- ⑤ 생계유통에서 도류통화(屠流通化)감량
- ⑥ 비위생적인 도계판매를 즉각 중지
- ⑦ 판매구조의 다원화
- ⑧ 닭의 해체판매실시와 상품화
- ⑨ 닭요리의 다각화
- ⑩ 소비확대를 위한 최대 홍보(弘報)
- ⑪ 시세정보의 신속

10. 계란의 유통대책

- ① 유통과정의 단축
- ② 중량과 등급 및 난질 별로 판매
- ③ 난질검사(혈란, 이물란은 제외)의 철저
- ④ 포장지의 개선

덕수가축약품상사

(旧성약원가축약품)

서울중구태평로2가344-3

대한일보사옆(우측)

TEL. 28·0645

시청

조선호텔

광화문

남대문

대한일보사

서소문

- ⑤ 파란이 나오지 않도록
- ⑥ 포장 시설의 완비(기실확대의 방지책)
- ⑦ 계란전문 시장의 개설
- ⑧ 공동출하와 공동판매
- ⑨ 계란의 영양적 가치인식과 경제성을 주지시킬 것.
- ⑩ 계란 가공의 연구개발
- ⑪ 소비증대를 위한 홍보활동

11. 육추의 비결

- ① 첫물을 먹일때 설탕물이나 비타민제 수용액을 먹일것.
- ② 체중별, 강약별, 발생시간별로 구분하여 입추할것.
- ③ 밀사(密飼)의 방지
- ④ 물그릇이나 모이그릇을 여유있게 하며 밀집관리를 방지
- ⑤ 환기의 철저와 습도유지(1~3주령)
- ⑥ 안정된 환경의 조성
- ⑦ 첫모이를 먹은것과 먹지 않은것을 구분하여 사육할것.
- ⑧ 첫모이를 특별히 배합할것.
- ⑨ 기구의 손상이나 과대 과소의 주의
- ⑩ 육추사에 먼지가 보이지 않도록
- ⑪ 간혹 공기 소독의 실시
- ⑫ 스트레스를 줄때에는 항생제와 비타민제를 급여
- ⑬ 모든 것을 기록과 도표로 표시
- ⑭ 계획 진행표를 작성
- ⑮ 가급적 MD 예방은 사육으로
- ⑯ 사료는 일관성있게 먹일것.
- ⑰ 관리자는 애착심있고 성의있는 관리를 하도록
- ⑱ 점등시간의 조절
- ⑲ 입부리는 3~4주령에 자를것.
- ⑳ 중추부터 방사를 꼭실시

- ㉑ 연속적이며 무리한 입추는 삼가할것.
- ㉒ 녹사료의 급여; 호박, 고구마.
- ㉓ 곰팡이 균에 주의
- ㉔ 연령에 따르는 기별사양
- ㉕ 지나친 고단백, 고열량사료의 급여를 지양하고 경제적인 사료급여
- ㉖ 계사주변에 상인 출입을 엄금

12. 신란계의 관리개선

- ① 능력과 계절, 연령에 따른 사료급여
- ② 경제성인 사료배합의 급여(경제적인 효율화)
- ③ 녹사료와 자급사료를 이용한 사료 배합과 일관성 있는 급여
- ④ 환기의 철저
- ⑤ 닭에게 안정성을 주도록 관리
- ⑥ 각종 스트레스를 주지말것.
- ⑦ 점등의 효율적인 관리
- ⑧ 기계화의 촉구
- ⑨ 울인 울아웃의 철저한 실시와 지역적인 방역대책
- ⑩ 생존율을 높이는데 최대 노력
- ⑪ 모든 사양관리에 급변을 주지말것.
- ⑫ 매주 경영 평가회 개최

이상 여러가지로 열거하였으나 양계업계는 지적력있는 반성과 연구개발로 경영기술의 고도화와 과학적인 기술향상으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된 양계가 이룩되어 불신 풍조가 하루 속히 없어져야 되고 외상거래에 의한 양계 경영풍조를 버려 명랑한 산업으로 또한 건실한 사업으로 유도하는데 서로의 협조와 각성이 촉구된다. 아무쪼록 양계산업의 확대생산을 지양하고 유통질서의 불합리를 시정하며 사료의 자급화와 국내계 육종으로 외화의 손실을 막는데 양계업자나 사료업체 부화업체 모두 힘을 합쳐 총 매진할 전기이다. □□